

책 사고 공연 본 돈, 돌려받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기존 공제율 15%→30% 적용
교보·인터파크 등 869개 업체

1일부터 소득공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하고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는 작년 12월 19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숙원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

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4일부터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2월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 도서와 공연티켓은 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

켓 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점은 개봉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이다.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럽서비스, 예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펀(M, 멜론), 네이버 공연 등과, 홈쇼핑분야에서는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이 등록했다.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이다. /뉴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김제교육지원청은 '징계맹개 땅·멋·꿈' 문화예술 공연인 숲속 오케스트라를 김제관내 초등학교 26교, 1,06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실시했다.

'징계맹개 땅·멋·꿈' 숲속 오케스트라

김제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은 '징계맹개 땅·멋·꿈' 문화예술 공연인 숲속 오케스트라를 김제관내 초등학교 26교, 1,06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실시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지역환경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계획하고 공연을 함께 했다.

그리그 홀베르크 모음곡 Op.40,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레오폴트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클라우스 바렐트 캐리비안의 해적을 연주하고 앵콜곡으로 학생들과 함께 소통 하기 위해 아이들 노래로 연주를 하며 합창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줄 아는 자랑스러운 김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훈 기자

내일로 미래로·흥(興)에서 혼(魂)으로'

12일 오후 7시 익산예술의전당서 익산시립합창단 무료공연

익산시립합창단(지휘 이민영)이 오는 12일 오후 7시 익산예술의전당 대 공연장에서 '내일로 미래로·흥(興)에서 혼(魂)으로'란 주제로 정기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맘미마의 'Dancing Queen' 및 다양한 영화 O.S.T '여인의 향기', 'Rocky', '쿵푸팬더' 등 흥이 넘치는 즐거운 음악과 혼이 담긴 웅장한 곡인 '아! 대한민국(건, 곤, 감, 리)' 등 감동이 공존하는 공연이 기대된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유망주로 익산출신인 바리톤 조용민과 테너 황인호의 솔로 무대와 장시운의 Electone(일렉톤)연주가 한 층 분위기를 살리고, 여수시립합창단(지휘 이민영)의 웅장한 공연이 함께해 더욱 힘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은 무료다. 초대권 배부는 5일부터 티켓 소진 시까지 한다. 초대권 배부처는 익산예술의전당과 습지문화예술회관, 도서관(모현, 영동, 부송), 행정복지센터(함열읍, 중앙동, 동산동, 신동, 영등1동, 어



양동, 삼성동, 익산시청(종합민원과) 등에서 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놀토! 꿈토!... 내 꿈의 아지트'

문체부 선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일부터 고창문화의전당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 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컨소시엄 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과 함께 '놀토!(노는 토요일), 꿈토!(꿈꾸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과 창작 국악뮤지컬 등 공연 작품과 연계한 예술감상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놀토!, 꿈토!'는 오는 7일 첫 1기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3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하고 11월에 3기 수업이 끝날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1기) 인형극이란? △(2기) 고창 절경의 전설과 유래 △(3기) 국악의 이해와 공연 기초 지식 알아보기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3주간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는 각 기수별로 1회씩 창작극과 가족뮤지컬 '뫼년이 모로', '국악콘서트' 등 공연관람이 이뤄진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참가학생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자 문화를 향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과 또래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